

6 사람



정 동문은 후배들에게 "20대는 자신이 재밌어하는 것을 찾는 시기"라며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의 바다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진=조병연 기자)

천상 번역가에서 이제는 작가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의 바다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해”

양현준 기자 yhj1001@khu.ac.kr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번역가·작가
정수윤(수학 1997) 동문

‘덕업일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것으로 모든 이들의 바람이다. 대학 졸업 후 처음 가본 일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일본 문학에 빠져든 정수윤(수학 1997) 동문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덕업일치를 즐기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하던 정 동문을 ‘번역’이라는 세계로 이끈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그가 방황하는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일까.

현실과 이상을 오갔던 20대
마침내 찾은 자신의 ‘천직’

9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은 ‘취업’이었다. 당시 수험생이었던 정 동문의 꿈은 소설가였다. 하지만 현실과 타협했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과를 선택했다. 꿈을 선택한다면 취업이 어려울 것이

라는 주변의 우려도 한몫했다. 정 동문은 자신의 꿈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과반에서 임시를 준비했다. 그렇게 수학과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전혀 원하는 공부라 아니었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던 정 동문은 학보사에 들어갔고, 또 다른 적성을 찾았다. “학보사 활동에서 글을 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 동문은 글 쓰는 게 좋아 국문과 복수전공을 택했다.

그렇게 졸업했지만 어떤 글을 쓰기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오랜 세월을 보냈다. 방송작가, 사보 제작을 경험했지만 아무리 글 쓰는 일이라도 맞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절을 회상하며 “언제 출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계속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평생을 생각했을 때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꿈을 찾아가는 게 확실한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꿈을 찾는 중, 어학연수로

처음 일본에 발을 내디뎠다. “일본 문학 번역가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일본 분위기가 잘 맞았고 사회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난 이 여행이 인생을 바꿨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전부라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경험이 좁은 세계를 확장시켜 줬죠.”

일본에서 일본어를 공부하던 정 동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일본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였다. 고민의 결과, 와세다대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공고를 봤다.

“공고에서 요구한 번역에 3~4년이 걸렸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천직이구나.” 당시 번역 작업으로 ‘어떤 글을 쓰기 좋아하는가’의 답을 찾았다. 여유 있는 글쓰기였다.

언어마다 다른 특징
작품의 ‘몰입감’ 유지하고자

원문 번역에는 번역가의 가치관이 녹아든다. 정 동문은 번역할 때,



정 동문의 첫 장편소설 『파도의 아이들』

(사진=이지수 기자)

독자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서 단순히 일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학’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일본 문학을 번역할 때면 번역가들은 난처한 상황을 겪는다. 한국 정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책 속에 등장할 때다. “선택의 문제지만 한국 독자가 번역 소설을 읽을 때, 그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결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정 동문은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날 때면,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본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해하려고 한다. 때로는 방언을 공부해 독자가 이야기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독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정 동문을 성공한 번역가로 만든 이유다.

“번역하면서 두 문화권이 교차하는 것을 보면 재밌어요. 다른 나라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를 넘나드는 과정이 큰 즐거움을 줘요. 하루 8~9시간을 번역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번역가를 넘어서
이젠 작가로

번역가로서 쉴 틈 없이 달려온 정 동문은 소설 『파도의 아이들』을 냈다. 번역 작품이 아닌 본인이 직접 쓴 책이다. “번역 일을 하면 작가의 개성이나 인생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정 동문은 작가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어떤 일이든 10년 정도는 해야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번역가로 10년 했으니 작가로 10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파도의 아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탈북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탈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결말을 갖고 있다.

방황하는 청년에게 정 동문은 “20대의 대학 생활이 중요해요. 자신이 재밌어하는 것을 찾는 시절이에요.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의 바다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하죠.”

정 동문은 자신이 번역가라는 바다를 찾은 것처럼 독자에게도 자신만의 길을 찾기를 당부했다. “일본 ‘미야가 겐지’라는 작가의 꿈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술을 하는 세상이었죠.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책을 놓지 않았으면 해요.” 정 동문은 자신의 과거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청년에게 조금해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바다를 찾길 바라고 있다.